

■ 2026 새해설계 김희수 진도군수

“지방소멸 선제 대응…군민 살기좋은 진도 실현”

농수산업·지역경제 부흥…따뜻한 맞춤 복지 실현 출산서 교육까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

“군민 모두가 진도군에서 살아가는 즐거움과 자긍심을 느끼는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를 실현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과의 약속을 더욱 성실히 지켜 나가겠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총 1158억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해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도군은 올해 대외적인 변화와 군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미래혁신 진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가장 먼저 농수산업 부흥을 통해 다

함께 잘 사는 진도, 생동하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중소 농어업인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업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확대와 외국인근로자 숙소 지원사업을 추진, 지속가능한 농업육성을 위해 친환경 농기계 지원과 교육을 통해 친환경 농업단지를 확대한다.

우수 농수산물을 한남체인, 메가마트, 김스클럽 등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해 판매를 확대하고 해외판촉전과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올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을 통해 김 생산·가공·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수산종자 실용화센터를 건립해 고부가가



치 양식품종을 육성한다.

또 군민 모두에게 따뜻한 감동 주는 맞춤형 복지 실현에도 나선다.

한 사람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곳을 찾아 따뜻하고 두텁게 지원하

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3160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사회참여 유도과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60명에서 85명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군은 출산에서부터 교육까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진도 조성에도 나선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임신·출산·육아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해 임신에서부터 육아까지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문화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건립 중인 청소년문화의집을 7월에 개관해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초·중·고 학생 대상 화상 영어교육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고 진도사랑 골든벨을 확대, 교육경비 지원과 장학사업 확대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도 나선다. 문화와 자연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문화관광정책을 추진한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로 선정된 진도산해도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문화예술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복합문화관광 시설을 조성하고,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세방낙조 아트문화타워 조성사업과 인문치유 관광루트 연계사업에 총 303억원을 투입해 K-관광휴양 벨트의 중심으로 남해안 관광시대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365일 꽃피는 진도, 아릅답고 쾌적한 진도로 가꿔 나간다.

365 꽃피는 진도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도로변, 유흥지, 생활권 주변에 아릅답은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군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맨발길을 조성하고 호국의 고장을 상징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변, 방조제 등에 무궁화 묘

목을 식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SOC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소멸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신 조도대교 건설과 진도 해안일주도로 국도 77호선 승격, 가사대교 건설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 국토교통부, 국회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김희수 군수는 “올해 군정 운영계획은 군민 참여와 협조, 공직자들의 변화와 융기있는 도전으로 꽃피울 수 있다”며 “지방소멸과 경제 위축 등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는 열정과 혁신으로 이겨낼 능력과 미래를 위한 확고한 비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900여 공직자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전군민이 화합하는 아릅답고 살기좋은 진도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겨울이 뜨겁다’…해남 스포츠마케팅 후끈

동계전지훈련 4만명·스포투어 41억 경제효과 기대

해남군을 찾은 동계 전지훈련 선수들로 지역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다.

19일 해남군에 따르면 2025~2026 동계 전지훈련을 통해 12개 종목, 연인원 4만1000여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1만명 이상 늘어난 규모로, 삼산면에 조성한 해남스포츠파크와 해남읍 구교체육관이 완공되면서 전지훈

련 종목과 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달아 해남의 지역경제도 활기가 돌고 있다.

대규모 전지훈련단 유치는 관광서비스를 맞은 겨울철 지역 경제에 단비와도 같은 기회로, 선수단 뿐만 아니라 함께 방문하는 학부모들의 소비까지 이어지면서 지

역 내 식당과 숙박업소 등 골목상권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해남군은 전지훈련단을 대상으로 훈련과 관광을 결합한 해남만의 특화 프로그램을 해남 스포투어(Spo-tour)를 본격 이동한다.

훈련의 시간에 해남의 대표 관광지인 공룡박물관, 땅끝마을, 우수영관지 등을 방문하고 지역 업체와 연결해 고구마 빵 만들기, 장담그기, 웰니스 체험 활동도 지원한다. 이는 반복되는 훈련에 지친 선

수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지역 명소를 알리고, 수익까지 올리는 일석산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군은 이번 동계시즌 동안 전지훈련을 통해 41억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을 찾은 선수들이 불편함이 없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해남을 다시 찾고 싶은 스포츠 관광의 메카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 15억 확보

완도군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6 시·군·구 연구 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5억원을 확보했다.

‘시·군·구 연구 산업 육성’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3월부터 공모 계획을 수립하고 세밀한 준비 과정을 거쳐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선정된 사업은 ‘수

로군은 전남테크노파크와 협력해 수산양식 산업을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추진하며,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수출형 K-푸드 및 뷰티·헬스 상품 개발, 수산양식 자동화 기자재 분야 육성, 시제품 제작 및 생산성 향상 설비 지원, 국의 마케팅 및 판로 개척 등이며, 지역 약 25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 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

영암, 지역 미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영암군립하정옹미술관이 올해 한 해 동안 ‘영암 미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영암 출신이거나 영암에서 활동 이력이 있는 미술인들을 전공, 주요 창작 경력, 작업 환경 등으로 분류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미술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전시, 홍보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자료는 신청서 접수, 서면 조사, 대면·유선 인터뷰 등을 거쳐 작성된 작가 정보다.

수집된 자료는 미술관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예술가 인력풀로 쓰이고, 전시·워크숍 등 미술관 사업에도 활용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